

상담자의 성 행동과 기독교상담윤리규정의 한계 및 대안

전 요 섭*

국문초록

이 연구는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성 행동을 분석하고 이런 문제를 예방하며,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바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담윤리규정 제정의 의미와 배경, 내담자관련 성 행동의 실태와 폐해, 상담관련 성 행동의 발생원인과 취약성, 성 행동에 대한 상담윤리적 입장, 기독교상담적 대처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성 행동은 성 행위(성교)를 포함하여 성 폭력, 성 폭행, 성 학대, 성 추행, 성적 호감 등 광범위한 성적 부정행위를 내포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상담윤리라는 것은 상담에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련의 태도, 기준, 지침, 규칙, 규정, 규범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상담자로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성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밀착되고 비성경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격되는 절제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상담자의 잘못된 성 행동 예방을 위한 기독교상담적 대처방안으로는 상담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상담자가 확고한 기독교인간관을 수립하도록 하고 투철한 역할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해야 하며, 관리기관에서는 상담자의 자격유지를 위한 상담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단어 : 상담, 상담자, 상담윤리, 기독교상담, 성 행동

• 논문 투고일: 2016년 9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6년 10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1일

* 성결대학교

I. 여는 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빈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윤리가 만연해 있고, 특히 그 가운데 잘못된 성 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상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상담이란 한 사람의 상담자와 한 사람의 내담자 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상담과정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상담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측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담전문가 자격관리기관(학회, 협회) 등에서는 상담자 윤리를 제정하고 상담자들에게 특정 행동의 제약 및 권장을 요구하고 있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인관계로서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해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이다.¹⁾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신뢰가 흔들리고, 대인관계가 어긋나며,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즉 상담이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긴밀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이므로 상담자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은밀한 성 행동이 야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성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드러나면 상담 및 상담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기독교상담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기독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며 사회문제로 비화된다. 다른 전문직보다도 상담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인 만큼 상담자의 잘못된 성 행동(sexual misconduct)은 사회적 신뢰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상담은 기독교, 성경, 교회, 신앙 등을 토대로 하는 상담으로서 상담자의 성 행동은 역시

1) Gary R. Collins, *Excellence and Ethics in Counseling*, 오윤선 역, 『기독교와 상담 윤리』 (서울: 두란노, 1997), 66.

그 토대에 대한 신뢰상실과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의 성 행동으로 인한 문제와 사건은 한 건만 발생해도 상담자의 전인격적 손상과 불명예, 내담자에게 많은 심리적 고통을 안겨 주게 된다. 하지만 국내 기독교상담학계에서 상담자의 성 행동에 대한 윤리적 지침, 규칙, 규정, 규범 등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상담 규정을 그대로 가져왔거나 미국의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²⁾ 또한 이에 대한 상담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성 행동의 예방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성 행동은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이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의 강화, 꾸준한 윤리교육, 발생 사례(사건, 사고) 전파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예방함에 있어 기독교상담윤리의 한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바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상담윤리규정 제정의 의미와 배경, 상담자의 성 행동의 실태와 폐해, 상담에서 성 행동의 발생원인과 취약성, 성 행동에 대한 상담윤리적 입장, 상담자의 성 행동 예방을 위한 기독교상담적 대처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다.³⁾

2) 김화자, “한국과 미국의 상담윤리규정 비교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2권1호(2014): 9-50.

3)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성 행동(sexual misconduct)이란 성 행위(sexual intercourse: 성교)를 포함하여 성 폭력(sexual violence), 성 폭행(sexual assault), 성 학대(sexual abuse), 성 추행(sexual harassment), 성적 호감(sexual attraction) 등 광범위한 성적 부정행위(behavior)를 내포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II. 펴는 글

1. 상담윤리규정 제정의 의미와 배경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 라고 한다면, 직업세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직업윤리’ 라 할 것이고, 목회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목회윤리,’ 상담자가 지켜야 할 윤리를 ‘상담윤리’ 라 할 수 있다. 상담윤리는 상담현장에서 전문인으로서 상담자가 지켜야 할 행동지침이므로 이는 결코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되어서 안 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본디, ‘윤리’ 라는 말은 ‘관습,’ ‘습관,’ ‘의식’ 을 나타내는 헬라어 ἠθος에서 비롯된 말로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단어가 ethic이다.⁴⁾ Norman L. Geisler에 따르면, 윤리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이며, 기독교윤리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⁵⁾이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기독교상담윤리는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안내하는 일련의 태도, 기준, 지침, 규칙, 규정, 규범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담윤리규정을 한국상담학회에서는 2002년에 제정하였고,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2003년에 상담전문가 윤리강령을 마련했다. 기독교상담학회로서는 일반상담학회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기로서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이 2010년에,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는 2014년에 제정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대략 10년 정도 앞서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가 1992년에 윤리규정을

4) Harold K. Moulton, ed., *The Analytical Greek Lexicon Revised*, 머릿돌 역, 『헬라어 분해 사전』 (서울: 머릿돌, 1990), 116.

5) Norman L. Geisler, *Christian Ethics: Options and Issues* (Grand Rapids, MI.: Baker, 1989), 17.

제정하여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규정을 숙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⁶⁾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는 1996년에, 미국상담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unseling: AAC)는 2005년에 규정을 마련했다.⁷⁾ 미국의 기독교상담학회로는 미국목회상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AAPC)가 1991년에 처음으로 윤리규정을 공표했고, 미국기독교심리연구학회(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 CAPS)는 1993년에, 미국기독교상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 AACC)는 2004년에 윤리규정을 공표했다.⁸⁾ 상담학 또는 기독교상담학이 학문적으로 태동한 시점을 고려하면 윤리규정의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⁹⁾ 그동안 상담을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그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관계를 바르게 규명하고, 이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며 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상담윤리의 지침, 규칙, 규정, 규범을 제정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윤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바른 행위를 권장하는 긍정적

6) 미국심리학회에서 상담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19가지 윤리규정은 (1) 상담자의 책임 (2) 능력 요건 (3) 도덕적 법적 기준 (4) 부진실 표시 (5) 공적 선언 (6) 비밀보장 (7) 내담자 복지 (8) 내담자-상담자 성적 관계 (9) 편파성이 없는 봉사 (10) 봉사의 규정 (11) 전문직업인과의 관계 (12) 보수규정 (13) 심리검사 안전수칙 (14) 심리검사 해석 (15) 심리검사 출판 (16) 연구조사 주의사항 (17) 출판명의 규정 (18) 조직에 대한 책임 (19) 승진활동 규정 등이다. Gerald Corey,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한기태 역, 『상담과 심리요법의 이론과 실제』(서울: 성광문화사, 1992), 319.

7) “American Association of Counseling code of ethics,” www.counseling.org(2016.4.30.)

8) Randolph K. Sanders & H. Newton Malony, *Christian Counseling Ethics: Handbook for Therapists, Pastors & Counselors* (Downers Grove, IL.: IVP, 2013), 11.

9) 한국에 상담학이 도입되고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발족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상담윤리규정이 제정된 것이다. 금명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의 이해”, 한국상담심리학회편, 『전문적 상담현장의 윤리』(서울: 학지사, 2010), 57.

규범과 바르지 못한 행위를 제한하는 금지규범에 근간을 두고 있다.¹⁰⁾ 기독교상담윤리의 경우, 이런 행위규정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경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이상(aspirational ideals)에 따라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시행령이 보완되어야 한다.

2. 상담자와 성 행동 실태와 폐해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하여 성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정신 건강관련 직업세계에서는 오래된 전통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상담자들이 이 규정을 깨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본인은 물론, 내담자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¹¹⁾ Haas, Malouf와 Mayerson 등은 상담현장에서 윤리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일들이 흔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¹²⁾

1) 상담자의 성 행동 실태

국내에서 근래 매스컴에 보도된 상담자의 성 행동에 대한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드러나지 않은 더 많고 다양한 성 행동의 문제가 있다.

10) Jay Earley. *Interactive Group Therapy: Integrating, Interpersonal, Action-Oriented & Psycho-dynamic Approaches* (Philadelphia, PA.: Brunner/Mazel, 2000), chapter 8.

11) Kenneth S. Pope & Melva J. T. Vasquez,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A Practical Guide*, 박균열 역, 『심리치료와 상담의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0), 231.

12) I. J. Haas, N. M. Malouf & N. H. Mayerson, "Ethical Dilemmas in Psychological Practic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21(1986): 316-321.

울산지방법원은 진로상담을 하다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모 대학 교수 A씨는 2015년 초 교수실로 찾아와 진로상담을 하던 여학생이 상담 중 눈물을 흘리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¹³⁾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 및 청소년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심리치료센터 원장 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한 심리치료센터에서 내담자 11명을 대상으로 총 1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 내담자에게 성 관계 경험을 묻고 역할극을 하듯 다가가 신체부위를 접촉한 바도 있다. 상대방이 거부감을 보였음에도 ‘상담의 일부’ 라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부반응이 있는 것’ 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멈추지 않았다. 또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우울증 증세로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 내담자에게는 “상대를 잊기 위해 나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라”며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10대도 2명 포함됐다.¹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근무했던 A씨는 B(30·여)씨가 강박증을 호소하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과 성 관계를 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세뇌했다. A씨는 “성 관계를 하지 않으면 네 병은 나을 수 없다”거나 “정신과 의사는 너를 고칠 수 없는데 내가 여러 사람을 고쳤고,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로 B씨를 길들였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성 관계를 마치 강박증의 치료행위라고 착각한 B씨와 성 관계를 하는 등 모두 13차

13) 「연합뉴스」, 2015. 8. 25.

14) 「연합뉴스」, 2016. 7. 1.

례에 걸쳐 성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안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¹⁵⁾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고등학생 여제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여고 교사 A(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제자 B(16)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B양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B양은 사건 직후 학교를 자퇴했으며,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 심리치료를까지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상담 등으로 친하게 지내다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¹⁶⁾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여고에서 상담을 받으러 온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에게 “한 번만 안아달라.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 줘”라면서 몸을 피하는 여제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며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¹⁷⁾

어떤 상황, 조건도 내담자와의 성적 친밀성을 나타내거나 성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¹⁸⁾ 외국 사례로는 Bouhoutsos,

15) 「조선일보」, 2014. 11. 24.

16) 「조선일보」, 2013. 11. 28.

17) 「조선일보」, 2016. 4. 11.

18) Pope & Vasquez,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239.

Holroyd, Lerman, Forer와 Greenberg는 704명의 응답자 가운데 남성 상담사의 4.8%와 여성 상담사의 0.8%가 내담자와 성 관계를 가진 사실을 제시했다.¹⁹⁾

Gartrell, Herman, Olarte, Feldstein과 Localio 등은 미국 전역의 정신건강의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 행동에 대하여 조사했는데 이는 가장 큰 규모의 조사연구로 알려졌다. 설문지는 5,574명의 정신건강의학자들에게 보내졌으며 26%만이 응답을 해왔는데, 6.4%의 정신건강의학자들이 환자들과의 성 관계를 인정했다. 나머지는 입맞춤이나 애무 또는 나체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 행동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성 행동 피해자의 87%가 여성이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33세로 나타났다.²⁰⁾

Kenneth S. Pope와 Melva J. T. Vasquez의 연구에서는 남성 상담사의 6.8%, 여성 상담사의 1.6%가 내담자와 성 관계를 가졌다고 발표했다.²¹⁾ Gary R. Collins는 상담자들의 5-7% 정도가 내담자에 대하여 성 관계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²²⁾ Vinson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31,300명의 전문가 면허(자격)증을 취득한 상담 · 심리치료사의 약 7%가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성 관계를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²³⁾ Jackson과 Nuttall은 정신

19) Sanders & Malony, *Christian Counseling Ethics*, chapter 5. 참고로 26년 전인 1977년 통계로는 Holroyd와 Brodsky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심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47명의 남성 응답자들 중 5.5%와 310명의 여성 응답자 가운데 0.6%가 내담자와 성 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J. C. Holroyd & A. M. Brodsky, "Psychologists Attitudes and Practices Regarding Erotic and Non-erotic Physical Contact with Patients," *American Psychologist* 32 (1977): 843-849. 다른 기관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1986년에 파악된 바에 의하면 6-10%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성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Kenneth S. Pope, P. Keith-Spiegel & B. G. Tabachnick, "Sexual Attraction to Clients: The Human Therapist and the Inhuman Training System," *American Psychologist* 41 (February 1986): 147-158.

20) Sanders & Malony, *Christian Counseling Ethics*, chapter 5.

21) Pope & Vasquez,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234.

22) Collins, *Excellence and Ethics in Counseling*, 66.

23) Sanders & Malony, *Christian Counseling Ethics*, chapter 5.

건강 직종에 근무하는 전문가 323명의 설문에 따르면, 9%가 내담자와의 성 관계를 인정했다.²⁴⁾ Kardener, Fuller와 Mensh는 로스엔젤레스 지역 114명의 남성 정신건강의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 10%가 내담자들과의 성 관계를 인정했다.²⁵⁾

종합해 볼 때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 관계는 대략 남성은 4.8-10% 정도, 여성은 0.6-1.6%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남성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성 관계 외의 다소 가볍고 광범위한 개념의 성 행동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기독교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 간 성 관계에 대한 통계 중 가장 적은 비율은 2%로 분석된 것이다.²⁶⁾ 기독교상담학자 Mark R. McMinn과 K. R. Meek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상담자 가운데 8% 정도가 성 관계를 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²⁷⁾ 미국의 목회상담 사례를 보면 목회자인 상담자와 신자 내담자 간에 발생한 성 관계는 10-15% 정도라고 분석되었다.²⁸⁾ 1990년 미국에서 4년간의 연구 끝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목사 가운데서 10%가 그들의 신자와 성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으며, 25% 정도가 어떤 종류의 성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목회상담자)와 기독교상담자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나 참고할만한 통계이다.

성 행동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하여 갖는 역전으로서 성적 매력(호감, 끌림)의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Kenneth S. Pope, Patrica Keith-Spiegel과 Barbara G. Tabachnick는 남녀 상담

24) Sanders & Malony, *Christian Counseling Ethics*, chapter 5.

25) Holroyd & Brodsky, "Psychologists Attitudes and Practices Regarding Erotic and Non-erotic Physical Contact with Patients," 843-849.

26) Sanders & Malony, *Christian Counseling Ethics*, 87-88.

27) Mark R. McMinn & K. R. Meek, "Ethics among Christian Counselors: A Survey of Beliefs and Behavior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4 (1996): 26-37.

28) Juanita Benetin & M. Wilder, "Sexual Exploitation and Psychotherapy," *Women's Rights Law Reporter* 11, no.2(1989): 121.

자 간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²⁹⁾ 하지만 여성 상담사 및 심리치료관련자의 76%, 여성 사회복지사의 70%, 그리고 남성 상담사 및 심리치료관련자의 95%, 남성 사회복지사의 92%가 내담자에 대하여 성적 매력을 느낀 적이 있다는 통계결과가 있다.³⁰⁾ 위의 연구는 모두 Kenneth S. Pope가 참여했는데, 연구시점을 살펴볼 때, 남녀 상담사 간 내담자에 대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는 2006년도였고, 차이가 있다는 연구는 1991년이였다.³¹⁾ 그렇다면 최초연구(1991)로부터 15년 후(2006)의 통계에서는 차이가 없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는 기독교상담자에게서도 대동소이하리라고 보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성적 매력(끌림)을 느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³²⁾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서까지 규정으로 제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담자에 대해서 성적 매력을 느끼는 상담자의 역전이 처럼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갖는 전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잘 통제해야 한다. 자연발생적인 성적 매력(호감, 끌림) 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성 행동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와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면 성적 매력, 호감, 끌림 등이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성 내담자들이 남성 상담자에게서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경우, 그 이유는 상담자는 항상 이해하고 수용성 높은 공감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위로, 지지, 격려해 주며, 필요

29) Kenneth S. Pope, Patrica Keith-Spiegel & Barbara G. Tabachnick, "Sexual Attraction to Clients: The Human Therapist and the (sometimes) Inhuman Training System," *American Psychologist* 41, no.2(2006): 147-158.

30) Pope & Vasquez,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245. 성적 매력, 호감 또는 끌림은 '이성적인 끌림,' '동성애적 끌림,' '아동에 대한 성적 끌림' 등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31) Pope & Vasquez,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245.

32) Pope & Vasquez,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243.

할 때 함께 있어 줄 뿐만 아니라 결코 내담자와 맞서지 않는 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³³⁾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비성적 접촉이라도 심리적, 물리적으로 일정 선을 넘지 않고 성적 안전거리(safety distance)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³⁴⁾

행동양식으로 나타나는 성적인 문제는 대부분 남성에 의해서 저질러진다. Gorge Cilder의 저서 *Sexual Suicide* 『성적 자살』에서는 “주요 강력범죄의 90%, 강간의 100%, 절도의 95%, 음주운전의 94%, 자살의 70%, 가족과 자녀상대 범죄의 91%가 남성들에 의해 범하는 것”³⁵⁾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남성들은 주로 시각을 통해 성적 매력을 감지하고, 자극을 받게 된다.³⁶⁾ 한국교회의 경우, 신자의 60-80%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여성과의 상담 기회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남성 상담자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내담자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 그리고 상담자로부터 어떤 안내, 지침, 대안, 방향 제시 등을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내담자는 심리정서적으로 불안, 공포 또는 외로움과 우울 등에 노출되어 있고, 상담자에 대한 강한 의존성이 나타나며 어떤 면으로든 도움을 받

33) Archibald D. Hart, Gary Gulbranson & Jim Smith, *Mastering Pastoral Counseling* (Portland, OR.: Multnomah Press, 1992), 136; Kenneth S. Pope, Janet L. Sonne & Jean Holroyd, *Sexual Feelings in Psychotherapy: Explorations for Therapists and Therapists in Training* (Washington D.C.: APA, 1993), 5; Tim LaHaye, *If Ministers Fall, Can They Be Restored?* 황승균 역, 『목회자가 타락하면』 (서울: 생명의 샘, 1992), 45.

34) Pope & Vasquez,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241. 상담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담자와 18inch(약 45cm) 내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며, 통상 최소 4feet(약 120c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Ronald B. Adler & Russell F. Proctor II., *Looking Out Looking In* (Boston, MA.: Cengage Learning, 2014).

35) Ted Roberts, *Every Man's Battle*, 권세연 역,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 (서울: 좋은씨앗, 2015), 96.

36) Roberts, *Every Man's Battle*, 100.

고자 하는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설득이나 지침은 내담자를 움직이게 하는데 이 때 성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성 행동이 비윤리라는 사실은 피차에 인식하고 있는 극히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런 현상들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³⁷⁾ 여성 내담자를 대상으로 빈번하게 성 행동을 범한 남성 상담자의 80% 정도가 한 내담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1회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여러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성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내담자 요인이라기보다는 상담자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³⁸⁾ 성 행동을 하는 상담자는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는 안전감을 갖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상담자의 성 행동에 따른 피해

상담자의 성 행동 실태에서 나타난 사례들은 상담이라는 미명 아래 내담자에게 저질러진 비행이다. 상담자로부터 성 행동을 당한 피해자로서 내담자는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심리이다.³⁹⁾ 성 행동을 당한 내담자들에게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은 수치심이며 이는 상당한 심리적 충격(trauma)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성적 피해자가 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느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비난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한다.⁴⁰⁾ Pope와 Sonne은 상담사의 성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는 증상 형태를 의미하는 신조어로 ‘상담자-내담자 성적 증후군’이라는 진

37) Collins, *Excellence and Ethics in Counseling*, 66.

38) Karen S. Kitchener & Sharon K. Anderson, *Foundations of Ethical Practice, Research & Teaching in Psychology & Counseling* (New York: Routledge, 2011), 250.

39) 강진령,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2016), 351.

40) Lisa A. Fontes, *Interviewing Clients Across Cultures*, 강영신 역, 『다문화 상담면접 기법』 (서울: 학지사, 2016), 272.

단용어를 만들었다.⁴¹⁾ 이 증후군에는 “이중성, 죄책감, 허무, 고립감, 성적 혼란, 신뢰 불능, 정체성의 혼란 및 경계선적 혼란, 정서적 불안정성, 억압된 분노, 자살위험의 증가,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포함시켰다. Bob Shebib의 분석에 따르면, “상담자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가졌을 때, 내담자에게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서 내담자는 혼란, 죄책감, 수치심, 고립감, 분노, 우울, 신뢰감의 손상, 자아존중감의 상실, 정서적 불안정, 정신신체적 장애, 성적 혼란, 자살위험의 증가 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⁴²⁾

미국에서 상담·심리치료사와 성 관계를 가진 내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은 우울증의 증가, 동기부여의 상실, 사회 부적응, 뚜렷한 정서장애,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로 11%가 입원했고, 1%는 자살했으며, 내담자 가운데 90%가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⁴³⁾

Collins는 기독교상담자의 성 문제는 상담자 자신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상담사역의 포기, 상담자의 명예 추락, 상담 효능성의 의심, 상담자나 내담자의 결혼생활을 파괴하는 등의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⁴⁴⁾ 미국 감독교회 6개 교구의 성직자들에 의한 성 행동 결과에 대

41) Kenneth S. Pope & Jannet L. Sonne, “Treating Victims of Therapist-patient Sexual Involvement,” *Psychotherapy* 28 (1991): 1174-1187.

42) Bob Shebib, Choices, 제석봉·이윤주·박충선 공역, 『사회복지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10.

43) Shackelford & Sanders, “Sexual Misconduct and the Abuse of Power,” chapter 5.

44)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3rd ed. (Wheaton, IL.: Tyndale House, 2007), 92. 1989년 미국의 한 목사가 법원에서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죄목과 이유는 여성 내담자가 감정적으로 상담자인 목사에게 완전히 의탁된 상태에서 상담을 통한 치료 행위라고 속여 성 관계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1986년 미국에서 제정된 의사 및 성직자에 의한 치료나 상담행위를 빙자한 성적인 부당행위를 금하는 법률을 첫 번째로 위반한 범법자가 된 것이다. 이 목사는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이혼하고 그 내담자인 여성과 동거하며, 중고자동차 판매원을 하고 있다.

한 통계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5% 정도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증 및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 25% 정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졌으며, 10% 정도는 심하게 의기소침(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성적, 경제적, 알코올 등의 문제로 파산 직전에 있고 40%에 이르는 목회자가 고독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⁴⁵⁾ 상담자의 성 행동은 대부분이 죄로 평가되는데 이는 인간을 비인간화하게 만들고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⁴⁶⁾ 내담자를 지지하고 돕기로 작정하고 전문직을 선택한 상담자가 내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행동은 한 건만 발생해도 개인은 물론, 전체 상담관련 종사자와 상담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3. 상담에서 성 행동의 발생원인과 취약성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성 행동은 대부분의 경우, 발각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고백이 나타나는 구조이다. 적발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면에서 그동안 행위자의 가식된 행동 또는 자기통제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를 실망스럽게 만든다.⁴⁷⁾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고소, 고발이 없었다면 많은 경우 묻혀지고, 법적 문제로 드러나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발가벗겨진 것처럼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므로 기독교상담자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적인 면에서 정결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상담실처럼 폐쇄된 장소에서, 단 둘이서만 범한 성 행동이 드러나지

45) Russell Chandler, *Racing toward 2001: The Forces Shaping America's Religious Future*, 맹용길 역, 『2001년을 향하여 경주하는 교회』 (서울: 쿰란, 1993), 302-303.

46) Tullian Tchividjian, *The Christian*, 정성목 역, 『더 크리스천』 (서울: 두란노, 2014), 237.

47) Kyle Itleman, *AHA*, 규장출판사 역, 『제자는 행동한다』 (서울: 규장, 2014), 109.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Dave Mearns와 Brian Thorne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성 행동은 대부분 상담자에 의한 것인데 이는 두 사람 간의 힘(권력)의 불균형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⁴⁸⁾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애정관계는 태생적으로 순수한 감정일 수가 없다.⁴⁹⁾ 상담관계로 형성된 남녀는 우선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높은 위치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 관계의 결과일 뿐이다. 상담자와 내담자, 목회자와 신자 관계에서 성 행동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형태라도 비윤리적이다.⁵⁰⁾ 합의 하에 성 관계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관계는 구조적으로 상담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내담자 측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⁵¹⁾ 성 행동이 합의 하에 이루어져 법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기독교상담에서는 이를 결코 옳은 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반 법률에서는 불건전한 성 관계라 할지라도 합의된 관계에서는 ‘혐의 없음’ 또는 다른 조항의 법적 처벌을 하게 되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합의와 죄의 관계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G. Lloyd Rediger는 상담자에게서 나타나는 성 행동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지적했다.⁵²⁾ 하나는 자신의 성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거나 오랫동안 성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는

48) Dave Mearns & Brian Thorne, *Person-centered Therapy Today: New Frontiers in Theory and Practice*, 주은선 역, 『인간중심상담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학지사, 2012), 171; Peter Misgofian & George Ohlschlager, *Sexual Misconduct in Counseling and Ministry*, 김연 역, 『상담 중 일어나는 성적 비행』 (서울: 두란노, 1997), 63.

49) 한국상담심리학회편, 『전문적 상담 현장의 윤리』 (서울: 학지사, 2014), 47.

50) AACC(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 *AACC Code of Ethics: the Y2004 Final Code Developed and Drafted by the AACC Law and Ethics Committee*, 김재덕 역, 『기독교상담윤리규정』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52.

51) 강진령 · 이종연 · 유형근 · 손현동, 『상담자 윤리』 (서울: 학지사, 2009), 313.

52) G. Lloyd Rediger, *Ministry & Sexuality: Case, Counseling and Cares* (Minneapolis: Fortress, 1990), 18-19.

시간여유가 있거나 스트레스 혹은 영적 부분들을 등한시하여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독교상담학자 William R. Miller와 Kathleen A. Jackson도 동의했다.⁵³⁾ 이런 문제가 있는 상담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 행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성 행동의 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상담자의 성 행동은 그의 부부생활에 불만이 있을 때 더욱 쉽게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부문제가 없어도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의 유혹과 함정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Archibald D. Hart, Gary Gulbranson와 Jim Smith는 건전한 부부생활이 부정관계를 막아주는 기본적인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담실 내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⁵⁴⁾ 이를테면, 남성 상담자가 부부 간의 성적 욕구를 충분히 해소한 후, 상담실에서 여성 내담자를 만나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성으로 보이지 않고 성적 욕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L. Gechtman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상담자 가운데 적어도 87%는 상담현장에서 이성에 대하여 성적 매력을 강하게 느낀 상태를 넘어 성 관계를 갖고자 하는 성욕을 가져본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⁵⁵⁾ 이 87%에 해당하는 상담자들이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Hart 등은 상담상황에서 내담자인 여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자의 안내, 지침, 대안, 방향 제시에 대하여 높은 수용성을 가지고 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적 유혹도 쉽게 받을 수 있다.

53) William R. Miller & Kathleen A. Jackson, *Practical Psychology for Pastors*, 제석봉 · 천성문 · 박충선 공역, 『목회자를 위한 상담심리학』(서울: 학지사, 2009), 57.

54) Hart, Gulbranson & Smith, *Mastering Pastoral Counseling*, 30.

55) Kenneth S. Pope, B. G. Tabachnick & P. Keith Spiegel, "Ethics of Practice: The Beliefs and Behaviors of Psychologists as Therapists," *American Psychologist* 47 (1987): 993-1006.

특히 신자들은 “자신의 목회자는 모든 한계를 알고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건전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된다.⁵⁶⁾ 이런 착각은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데 상담자가 욕정과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 역전이 가 나타난다는 점을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간과하고 있다.⁵⁷⁾

상담자의 성적 욕구 자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사회기관은 없으며, 이는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그 자체를 법으로 제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⁵⁸⁾ 하지만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상으로 성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학회의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있다.⁵⁹⁾ 아울러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해서

56) Hart, Gulbranson & Smith, *Mastering Pastoral Counseling*, 30.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목회자의 성윤리 강령제정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기독교뉴스 2016년 10월 3일자, 또 대한기독교감리회총회 재관위원회는 목회자의 부적절한 성 행동에 대해 출교를 선고한 바 있다. 「기독교뉴스」, 2016. 9. 29. 또한 장로회 총회 일각에서는 “목회자의 성적 일탈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목회직이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목회자들은 강력한 직업윤리와 함께 성 윤리 기준을 확립해야 하고 이러한 윤리강령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독일보」, 2016. 10. 19.

57) 성 중독 여성 내담자를 상담하는 내용을 묘사한 영화 “님포매니악 볼륨2” (Nymphomaniac vol. II, 2014년 개봉)에서 남성 상담자가 여성 내담자를 성 추행하는 마지막 장면은 통제되지 않은 남성 상담자의 성욕과 역전이를 자세하게 묘사했다. 이 영화는 상담에서 성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성욕을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담에서 역전이가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준다.

58) Clint E. Bruess & Jerrold S. Greedberg, *Sexuality Education: Theory & Practice*, 조아미 · 박선영 · 유우경 · 이정민 · 진영선 · 박은혁 · 정재민 · 선필호 · 김소희 공역, 『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1), 126. 상담자가 성적 욕구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건전한 성 윤리를 갖고 우선적 성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재성, “인간의 성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295-323.

59) 정순례 · 양미진,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5), 115-116.

는 곧 바로 사법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 행동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영성이 함양되지 못하며,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는 상담자가 범하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성 행동이다.⁶⁰⁾

4. 성 행동에 대한 상담윤리적 입장

미국상담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unseling: AAC)는 2005년에 상담윤리강령을 제정했다.⁶¹⁾ 그 내용 가운데 성 행동에 대한 규정은 F3b인데, 여기에 “상담자는 수련생과의 성적이거나 로맨틱한 상호관계는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F3c에는 “상담자는 수련생에게 성적 위협을 가하거나 묵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F10a에는 “학생과 성적이거나 로맨틱한 관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나 명확하게 성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

미국기독교상담자협회(AACC)에서는 상담윤리규범에서 성 행동에 관하여 직접적인 성 행위, 유혹적인 성적 언어, 비언어적 성적 행위, 로맨틱한 관계로 끌어들이는 성적 언어나 행위, 내담자의 성 생활에 대해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과거를 불필요하게 탐문하는 행위, 내담자의 성적 매력을 부적절하게 표출시키는 행위, 성적 유머 등은 모두 성적 비윤리성에 포함되는 성 행동으로 규정했다.⁶²⁾ 이 규범은 미국의 윤리규정 가운데 성 행동의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60) Augustus E. Jordan & Naomi M. Meara, “Ethics and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Psychologists: The Role of Virtues and Principl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21 (1990): 112. Jordan & Meara는 상담자가 갖추어야 한 도덕적 덕목으로 성숙, 판단력, 분별력, 지혜 등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 “American Association of Counseling code of ethics,” www.counseling.org (2016.4.30.)

62) AACC(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 『기독교 상담윤리규정』, 53.

미국심리학회(APA) 윤리규정은 성 행동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10.05조 현재 상담·심리치료 중인 내담자와의 성 관계: 상담·심리치료사는 현재 상담·심리치료 중인 내담자와 성 관계를 갖지 않는다. 제10.06조 현재 상담·심리치료 중인 내담자의 친인척 및 의미있는 타인과의 성 관계: 상담·심리치료사는 현재 상담·심리치료 중인 내담자의 친인척이나 의미있는 타인과 성 관계를 갖지 않는다. 상담·심리치료사는 위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상담·심리치료를 종결하지 않는다. 제10.07조 이전 성 행위 상대자의 상담·심리치료: 상담·심리치료사는 성 관계를 갖은 사람들을 상담·심리치료의 대상인 내담자로 받지 않는다. 제10.08조 전(前) 내담자와의 성 관계: (a) 상담·심리치료사는 상담·심리치료의 중단 혹은 종결 이후 적어도 2년 동안 전 내담자와 성 관계를 갖지 않는다. (b) 상담·심리치료사는 2년 간의 간격을 두고도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 내담자와 성 관계를 갖지 않는다. 상담·심리치료의 중단 혹은 종결 이후 전 내담자와 성 관계를 갖지 않은 상담·심리치료사가 2년 뒤 성 관계를 갖게 될 경우에 거기에는 어떤 부당한 이용이 없었고, 다음과 같은 관련된 사안에 비추어 정당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1) 상담·심리치료의 종결 이후 적정한 시간이 지났는지 (2) 상담·심리치료의 유형, 지속, 강도 (3) 상담·심리치료 종결의 정황 (4) 내담자의 개인적 기록 (5) 내담자의 현재 심리상태 (6) 내담자에게 있을 만한 부정적인 충격의 가능성 (7) 상담·심리치료 과정 또는 후에 상담·심리치료사가 내담자에게 성적 혹은 애정관계를 갖기 위한 제안 혹은 요청한 어떤 발언이나 행위

상담사 자격(면허) 관리기관(학회, 협회)은 상담자가 윤리규정을 어겼을 때 자격을 박탈하고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는 전문가 집단을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기독교상담자는 통상적인 윤리규정을 넘어 성경이 그의 삶의 규정이므로 더 높은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등) 기독교상담에서 윤리적 결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⁶³⁾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규범 가운데 성적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⁶⁴⁾ (1)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 어떠한 종류이든 성적 관계는 피해야 한다. (2) 상담심리사는 이전에 성적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담심리사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상담 종결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사는 이 관계가 착취적인 특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상담 종결 이후 2년이 지나면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항목은 기독교상담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한 항목이다.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에서 성적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⁶⁵⁾ (1) 상담사는 내담자와 어떠한 종류이든 성적 관계는 피해야 한다. (2) 상담사는 이전에 성적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담사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상담 종결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상담사는 이 관계가 착취적인 특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는 한국상담학회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⁶⁶⁾ 여기

63)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89–90.

64) http://www.krcpa.or.kr/sub01_5.asp?menuCategory=1 (2016.9.27).

65) <http://www.kaccp.org> (2016.9.27).

66) 강진령은 상담윤리규정의 한계를 여섯 가지로 분석했다. (1) 윤리기준의 한계는 기본원칙만 제시되어 있다. (2) 명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3) 적극적이지 못하고 반응적인 경향이 있다. (4) 상담기관(협회, 학회) 간의 윤리기준이 달라서 혼란이 야기된다. (5) 동일한 윤리규정 내에서도 상충되는 내용으로 갈등이 야기된다. (6) 소속기관의 규정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강진령,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94.

서 2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공교롭게도 미국심리학회(APA)의 내용과 동일하고, 규정 제정일을 분석해 보면 미국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목회상담협회의 윤리강령에는 “내담자가 원하였거나 동의를 한 경우이라도 내담자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 줄로만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다.⁶⁷⁾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행위에 대한 고소 혹은 보고가 있을 경우 절차를 밟는다고 되어 있다.⁶⁸⁾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성 행동에 대한 규정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하거나 포괄적이거나 또는 미국의 것에 근거하여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여 실무 상담사들이 이해하거나 이행하기에 쉽지 않다. 더욱이 기독교상담윤리로 받아들이기에 곤란한 부분도 있다.

5. 상담자의 성 행동 예방을 위한 기독교상담적 대처방안

1) 확고한 성경적 인간관 수립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를 자신과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

67) <http://www.kapc.or.kr/sub/ms3.php>(2016.9.27).

68) (1) 문제제기가 접수된 후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협회 임원진에게 이를 통보하고 제반정보를 제출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3명의 윤리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건조사 결과내용을 검토하고 윤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3) 윤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소위원회는 윤리위원회를 대신하여 사건조사결과와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처벌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심의는 비밀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회원, 원고, 그들의 변호인 등이 회의에 초청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판결이 견책 또는 면직 처분과 관련된 경우에만 회원은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최종 재판권을 갖는 윤리위원회에 접수될 수 있다. 항소는 윤리위원회의 통보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소송이 계류 중일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소송에 대한 판결을 연기 할 수 있고 잠정적으로 불항소 또는 징계 처분 약정을 부과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판결이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물증이 발견될 경우 해당 회원 또는 원고는 윤리위원회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이는 이전에 항소한 적이 없었을 경우에 한한다. 재심리에 대한 결정권은 윤리위원회가 전적으로 갖는다.

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체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의인으로서 죄인을 돕는다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같은 죄인이며 연약한 인간이지만 더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갈 6:2). 상담자는 이성상담의 경우, 사도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딤후 5:2)는 권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이성을 성욕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⁶⁹⁾ 신약학자 Richard C. H. Lenski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 “...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말씀의 주석에서 ‘정절에 있어서’라는 헬라어 ‘ἐν ἀγνείᾳ’는 ‘성적인 본성을 고려하여’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⁷⁰⁾ 사도바울은 성욕이 왕성한 연령에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젊은 여성을 대할 때 성적인 본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하라는 권면과 경고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며, 기독교상담자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다.

기독교상담자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인간관을 확고하게 수립한 후에야 비로소 상담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한, 상담을 진실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담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 인간관에서 이탈하여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로 인간을 보는 것이 분명하다.⁷¹⁾ 즉 상담자 자신이 힘의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내담자를 조절(control) 또는 조작(manipulation)하게 되

69) 이 말씀의 의미는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여성신자들을 대할 때 주의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다. T. Croskery, R. Finlayson & W. M. Statham, *Timothy I*, 풀빛성경주석번역위원회 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서울: 한국광보개발원, 1984), 236.

70) Richard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to Timothy, to Titus and to Philemon*, 장병일 역,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서울: 백학출판사, 1976), 169.

71) Miller & Jackson, *Practical Psychology for Pastors*, 58.

는 것이다. 상담자의 권위와 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용이며 남용이 명백하며, 약탈자(삼하 12:4)로 돌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윤리 지침, 규칙, 규정, 규범 등에 따라 통제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이전에 인간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내담자를 대해야 한다는 것은 상담자의 기본이다.⁷²⁾

2)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담윤리교육 강화

기독교상담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역할정체성(role identify)을 가져야 한다. 역할정체성이 흔들릴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성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은 상담자 양성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양성기관에서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상담자의 자질이 구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는 물론 사회 그리고 기독교와 신앙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기독교상담학과(전공) 및 상담대학(원) 등의 양성기관에서는 교과과정에 상담윤리 교과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통제는 법과 도덕 질서 아래서 지도받고 훈련을 받음으로써 성숙하게 될 수 있다.⁷³⁾ 아울러 자격관리기관에서는 자격기간이 만료된 상담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갱신) 조건으로 상담윤리(성문제 발생사례 전과 등)에 대해 재확립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상담윤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정지하거나 성 문제 유발자는 1회라도 발생 시 제명(1 strike out)하는 것이 규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처벌위주로서 행동을 제재한다는 발상은 한계가 있으며, 예방과 교육이 중요하다.

72) 김영근, “청소년의 성문제와 목회상담”,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4권(2010): 103-129.

73) Thomas C. Oden, *Classical Pastoral Care* (Grand Rapids, MI.: Baker, 1987), 186.

3) 성 행동 예방을 위한 방안들

내담자에 대한 성적 감정과 정서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는 하지만, 상담자가 스스로 적극적인 음란한 상상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절제하고 노력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Collins는 “성적 상상으로부터 모든 성 행동 문제가 발생되므로 환상이 마음에 떠오르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앞에 내어놓고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대적하라”⁷⁴⁾고 강조했다. 성적 환상의 반복과 몰입이 환상의 내용을 증가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 행동을 일으키는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실제적으로 Kitchener와 Anderson은 상담자가 성 행동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 제시했는데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참고하는 것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⁷⁵⁾ Collins는 상담자가 성 문제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하여 아홉 가지를 제시했다. (1)

74)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93.

75) (1) 특정 내담자와 상담시간을 더 길게 잡는 것, (2) 동료상담자가 없는 시간대에 특정 내담자와 상담시간을 잡는 것, (3) 늦은 시간대에 특정 내담자와 상담하고 함께 퇴근하는 것, (4) 특정 내담자와 전화통화를 빈번하게 하거나 통화가 길어지는 것, (5) 특정 내담자에게 상담자의 자기개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6) 특정 내담자에게 상담비용을 감해주는 것, (7) 특정 내담자와 식사시간에 상담을 하는 것. Kitchener & Anderson, “Foundations of Ethical Practice, Research & Teaching in Psychology & Counseling,” 252. 또 Peter Misgofian & George Ohlschlager는 이에 대하여 (1) 지나친 개인비밀이 많은 경우, (2) 냉담, (3) 완고하고 경건한 체하는 도덕적 태도, (4) 배우자 외의 사람들과 일상적인 교제, (5)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친밀감 부족, (6) 일차선적 인생방식(도움을 주는 역할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 (7) 일 중심적 경향, (8) 성적인 위험을 소홀히 하고 가정방문과 다른 만남에 기꺼이 참여, (9) 동료의 충고 무시 등으로 분석했다. Misgofian & Ohlschlager, *Sexual Misconduct in Counseling and Ministry*, 63.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는 목회자의 성적 탈선 위험징후에 대해서 여섯 가지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1) 목사와 성도의 행동을 성도들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게 느낄 때 (2) 성적 흥분이 일어날 때 (3) 성도를 목양의 대상이 아니라 성적인 상대로 공상을 하게 될 때 (4) 성도와 대화할 때 성도의 관심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과 문제에 집중하고 나눔으로써 친밀감을 느낄 때 (5) 특정 성도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 (6) 어느 성도가 자신에게 애정적/성적 표현을 보낼 때. 「기독일보」, 2016.10.27.

정서적, 성적 욕구가 다른 곳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2) 결혼의 친밀감이 빈약하다. (3) 성적 환상이 자주 일어난다.(상담자의 성 행동은 적지 않은 경우에 포르노그래피의 영향일 수 있다) (4) 내담자를 돕는 것 외에 다른 외적인 활동이나 흥미가 없다. (5) 일중독 성향이 있다. (6) 상담자가 동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고립된 성향의 사람이다. (6) 또래집단의 상호책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7) 상담자가 자신의 성에 대해 비밀스런 고통과 갈등이 있다.⁷⁶⁾

상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관계 조성시 상담회기와 빈도를 정할 때 가급적 단기상담을 한다거나, 정해진 장소에서만 상담을 하고, 개인적인 친밀감을 나눌만한 기회를 방지하며, 시선을 내담자의 신체 특정한 곳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⁷⁷⁾ 성적 주제에 대한 상담은 지나치게 길게 다루거나 자세하게 질문하지 않고, 상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계를 늦추지 않음으로써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것은 상담자의 얼굴로 나타내거나 언어로 표현되는 성 행동이다. 내담자에게 반갑다는 표시로 눈짓(wink)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밝은 미소, 성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시선이나 표정 등은 피해야 한다.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등의 신체접촉은 상담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감정전이(또는 역전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할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하여 내담자의 등을 쓰다듬어 준다든지, 어깨를 끌어안아 주거나 손을 꼭 잡아주거나 포옹하는 등의 행동은 성적 자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것이다.

상담윤리에서 상담환경은 중요한 주제이다. 기본적으로 상담현장의

76)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93; Peter Mosgofian & George Ohkschlager, *Sexual Misconduct in Counseling and Ministry: Intervention, Healing and Self-protection* (Waco, TX.: Word, 1995).

77) Roberts, *Every Man's Battle*, 152.

노출은 비밀보장성에 어긋나는데 이는 비유컨대 ‘감염’ (infection)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래서 상담실은 폐쇄된 곳이 대부분인데 폐쇄된 좁은 공간에서 남녀 간의 정서적 교류는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⁷⁸⁾ 상담실 이외의 장소에서 상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담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또는 마땅한 상담장소가 없다고 하여 상담자 또는 내담자의 승용차 내에서 상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혹의 요소가 된다. 상담 내용은 대개 개인적이며 비밀스러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자신의 상담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지게 되면 사생활(privacy)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담자는 상담자를 은밀히 찾아와서 은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은밀히 가는 경우가 많다. 남성 상담자와 여성 내담자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호텔에 위치한 고급식당이나 커피숍 등지에서 만난다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내담자나 상담자의 자택도 상담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는데, 내담자가 자신의 집으로 상담자를 초대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양해야 한다. 물론 내담자가 상담을 원하나 병중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입원 상태여서 상담자를 초대하는 목회상담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오해의 발생은 상담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며 상담자로서 설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⁷⁹⁾

목회상담자 가운데 일부는 문제를 가진 여성 신자의 남편이 배석한

78) 前 국립합창단 지휘자였던 A교수는 개인 린넨실에서 여제자를 1:1로 지도하면서 여러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일이 있었다. 폐쇄된 공간에서 이성 간의 작업(상담, 교육, 지도 등)은 다른 곳에서도 훨씬 더 많은 성 행동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조선일보」, 2016.9. 23.

79) 변영인, “기독교 복음주의적 접근으로서의 성교육”,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6권(2006): 168-199.

자리에서 상담하거나 동시에 부부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그렇게 상담할 수만은 없고,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자들은 상담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일부 목회상담자는 한 여성 신자 내담자와의 상담을 3회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짧은 상담회기를 통해 내담자가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⁸⁰⁾ 이런 단기상담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나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상담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방법들이 활용되기도 한다.

늦은 시간대에 상담하는 것은 상담자나 내담자를 피곤하게 하여 상담에 집중하기 어렵고, 불성실한 상담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담자는 상담시간대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늦은 시간의 상담은 이성상담일 경우에 심각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고 밤 시간대의 감정은 낮 시간대와 같지 않기 때문에 피차 성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특별한 위기상담의 경우가 아니라면, 늦은 시간대의 상담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담자와 내담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목회상담의 경우, 긴박한 문제를 가지고 늦은 시간에 목회상담자의 방문을 요청할 때에 남성 상담자는 상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늦은 시간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배우자를 대동하여 방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성 간의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남성이 남성을 상담하고, 여성이 여성을 상담할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논리로는 상담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이성이라는 이유로 상담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성 문제를 제기한다면 동성 간 상담도 금해야 한다는 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산부인과 의사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는 논리에도 유사하다. 이성, 동성의 상담이나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보

80) LaHaye, *If Ministers Fall, Can They Be Restored?* 45.

다 더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바른 성 개념을 가지고 바르게 상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기준을 숙지하는 것은 상담전문가로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지식만으로는 윤리적인 상담전문가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⁸¹⁾ 기독교상담자로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성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밀착되고 비성경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격되는 절제의 훈련이 중요하다.

Ⅲ. 닫는 글

상담의 윤리, 도덕성에 대해서는 Don S. Browning이 매우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상담은 윤리적 기초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기독교상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규범(윤리)의 결핍이라고 보고 내담자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분명한 도덕적 규범을 주지시키지 않으면 깊은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서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⁸²⁾ 상담을 하기 위해서 윤리적 가치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자명한 사실이다.

상담에서 성적인 죄는 동일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보며, 하급인간으로 인식하며 함부로 대하는 데서 비롯되는 횡포이며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인 자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더럽히는 것

81) Gerald Corey, *Creating Your Professional Path*, 김인규 역, 『성장하는 상담전문가의 길』 (서울: 학지사, 2014), 209.

82) Don S. Browning, *The Moral Context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PA.: Westminster, 1976), 108-109. 그는 상담자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판단과 아울러 내담자를 윤리적으로 직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 S. Browning, *Religious Ethics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83), 119.

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을 갖지 못한 상담자가 상담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성경은 성적인 죄를 여타의 죄보다 더 무겁게 다루는 경우를 볼 수 있다.⁸³⁾ 상담자가 내담자를 성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죄가 상담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상담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선행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성 행동에 앞서 나타나는, 성 행동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을 잘 분석하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이를 규정으로만 통제하거나 위법자에 대하여 징계하려고 하기 전에 자격 발급, 관리기관에서 꾸준히 예방교육을 하여 상담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상담자의 성 행동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예방함에 있어 기독교상담윤리의 한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바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으로서 상담자의 성욕을 다루는 구체적인 기독교상담방안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였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상담자의 잘못된 성 행동의 실태와 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통계적인 연구나 그와 관련된 질적 연구가 있다면 이 연구와 아울러 이해를 돕는 입체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3) Tchivitjian, 『더 크리스천』, 237.

【 참고문헌 】

- 강진령.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2016.
- 강진령 · 이종연 · 유형근 · 손현동. 『상담자 윤리』. 서울: 학지사, 2009.
- 김영근. “청소년의 성문제와 목회상담”.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4권(2010): 103-129.
- 김화자. “한국과 미국의 상담윤리규정 비교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2권1호(2014): 9-50.
- 변영인. “기독교 복음주의적 접근으로서의 성교육”.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6권(2006): 168-99.
- 정순례 · 양미진.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5.
- 하재성. “인간의 성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295-323.
- 한국상담심리학회편. 『전문적 상담현장의 윤리』. 서울: 학지사, 2014.
- AACC(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 *AACC Code of Ethics: the Y2004 Final Code Developed and Drafted by the AACC Law and Ethics Committee*. 김재덕 역. 『기독교상담윤리규정』.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 Adler, Ronald B. & Russell F. Proctor II. *Looking Out Looking In. Bonston, MA.*: Cengage Learning, 2014.
- Benetin, Juanita & M. Wilder. “Sexual Exploitation and Psychotherapy.” *Women’s Rights Law Reporter* 11, no.2(1989): 121.
- Browning, Don S. *The Moral Context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PA.: Westminster, 1976.
- Browning, Don. S. *Religious Ethics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83.
- Bruess, Clint E. & Jerrold S. Greedberg. *Sexuality Education: Theory & Practice*. 조아미 · 박선영 · 유우경 · 이정민 · 진영선 · 박은혁 · 정재민 · 선필호 · 김소희 공역. 『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1.
- Chandler, Russell. *Racing toward 2001: The Forces Shaping America’s Religious Future*. 맹용길 역. 『2001년을 향하여 경주하는 교회』. 서

- 올: 쿠파, 1993.
- Collins, Gary R. *Excellence and Ethics in Counseling*. 오윤선 역. 『기독교와 상담윤리』. 서울: 두란노, 1997.
- Collins, Gary R. *Christian Counseling*. 3rd ed. Wheaton, IL.: Tyndale House, 2007.
- Corey, Gerald. *Creating Your Professional Path*. 김인규 역. 『성장하는 상담 전문가의 길』. 서울: 학지사, 2014.
- Croskery, T., R. Finlayson & W. M. Statham. *Timothy I*. 풀빛성경주석번역위원회 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서울: 한국광보개발원, 1984.
- Corey, Gerald.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한기태 역. 『상담과 심리요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Earley, Jay. *Interactive Group Therapy: Integrating, Interpersonal, Action-Orientated & Psycho-dynamic Approaches*. Philadelphia, PA.: Brunner/Mazel, 2000.
- Fontes, Lisa A. *Interviewing Clients Across Cultures*. 강영신 역. 『다문화 상담면접기법』. 서울: 학지사, 2016.
- Geisler, Norman L. *Christian Ethics: Options and Issues*. Grand Rapids, MI.: Baker, 1989.
- Haas, I. J., N. M. Malouf & N. H. Mayerson. “Ethical Dilemmas in Psychological Practic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21(1986): 316–321.
- Hart, Archibald D., Gary Gulbranson & Jim Smith, *Mastering Pastoral Counseling*. Portland, OR.: Multnomah Press, 1992.
- Holroyd, J. C. & A. M. Brodsky. “Psychologists Attitudes and Practices Regarding Erotic and Non-erotic Physical Contact with Patients.” *American Psychologist* 32(1977): 843–849.
- Itleman, Kyle. *AHA*. 규장출판사 역. 『제자는 행동한다』. 서울: 규장, 2014.
- Jordan, Augustus E. & Naomi M. Meara. “Ethics and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Psychologists: The Role of Virtues and Principl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21(1990): 112.
- Kitchener, Karen S. “Intuition, Critical Evaluation and Ethical Principles: The Foundations for Ethical Decisions in Counseling Psychology.”

- Counseling Psychologist* 12 (1984): 43–55.
- Kitchener, Karen S. & Sharon K. Anderson. *Foundations of Ethical Practice, Research & Teaching in Psychology & Counseling*. New York: Routledge, 2011.
- LaHaye, Tim. *If Ministers Fall, Can They Be Restored?* 황승균 역. 『목회자가 타락하면』. 서울: 생명의 샘, 1992.
- Lenski, Richard C. H.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to Timothy, to Titus and to Philemon*. 장병일 역.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서울: 백함출판사, 1976.
- McMinn, Mark R. & K. R. Meek. “Ethics among Christian Counselors: A Survey of Beliefs and Behavior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4(1996): 26–37.
- Mearns, Dave & Brian Thorne. *Person-centered Therapy Today: New Frontiers in Theory and Practice*. 주은선 역. 『인간중심상담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학지사, 2012.
- Miller, William R. & Kathleen A. Jackson. *Practical Psychology for Pastors*. 제석봉 · 천성문 · 박충선 공역. 『목회자를 위한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9.
- Misgofian, Peter & George Ohlschlager. *Sexual Misconduct in Counseling and Ministry*. 김연 역. 『상담 중 일어나는 성적 비행』. 서울: 두란노, 1997.
- Mosgofian, Peter & George Ohkschlager. *Sexual Misconduct in Counseling and Ministry: Intervention, Healing and Self-protection*. Waco, TX.: Word, 1995.
- Moulton, Harold K. Ed. *The Analytical Greek Lexicon Revised*. 머릿돌 역. 『헬라어 분해 사전』. 서울: 머릿돌, 1990.
- Oden, Thomas C. *Classical Pastoral Care*. Grand Rapids, MI.: Baker, 1987.
- Pope, Kenneth S., B. G. Tabachnick & P. Keith Spiegel. “Ethics of Practice: The Beliefs and Behaviors of Psychologists as Therapists.” *American Psychologist* 47(1987): 993–1006.
- Pope, Kenneth S., Janet L. Sonne & Jean Holroyd. *Sexual Feelings in Psychotherapy: Explorations for Therapists and Therapists in Training*. Washington D.C.: APA, 1993.

- Pope, Kenneth S. & Janet L. Sonne. "Treating Victims of Therapist-patient Sexual Involvement." *Psychotherapy* 28(1991): 1174-1187.
- Pope, Kenneth S. & Melva J. T. Vasquez.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A Practical Guide*. 박균열 역. 『심리치료와 상담의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0.
- Pope, Kenneth S. Patrica Keith-Spiegel & Barbara G. Tabachnick. "Sexual Attraction to Clients: The Human Therapist and the (sometimes) Inhuman Training System." *American Psychologist* 41, no.2(2006): 147-158.
- Rediger, G. Lloyd. *Ministry & Sexual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Roberts, Ted. *Every Man's Battle*. 권세연 역.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 서울: 좋은씨앗, 2015.
- Sanders, Randolph K. & H. Newton Malony. *Christian Counseling Ethics: A Handbook for Therapists, Pastors & Counselors*. Downers Grove, IL.: IVP, 2013.
- Shebib, Bob. *Choices*. 제석봉 · 이윤주, 박충선 공역. 『사회복지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 Tchivitjian, Tullian. *The Christian*. 정성목 역. 『더 크리스천』. 서울: 두란노, 2014.
- www.counseling.org(2016.9.27).
- www.krcpa.or.kr/sub01_5.asp?menuCategory=1(2016.9.27).
- www.kaccp.org/(2016.9.27).
- www.kapc.or.kr/sub/ms3.php(2016.9.27).
- 「기독교뉴스」. 2016.9.29; 2016.10.3.
- 「기독일보」. 2016.10.19; 2016.10.27.
- 「문화일보」. 2016.1.26.
- 「연합뉴스」. 2015.8.25; 2016.7.1.
- 「조선일보」. 2013.11.28; 2016.4.11; 2016.9.23.

【 Abstract 】

Christian Counseling Ethics on a Counselor's Sexual Misconduct

Jeon Joseph

SungKyu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Christian counseling ethics on a counselor's sexual misconduct. The researcher dealt with the meaning and the background of counseling ethics. The researcher also examined the realities and the evil effect of a counselor's sexual misconduct, cause and weakness of a counselor's sexual misconduct, and a Christian counselor's preventive device against sexual misconduct. The definition of sexual misconduct used in this study consists of sexual intercourse, sexual violence, sexual assault, sexual abuse, sexual harassment, sexual attraction, and various sexual behavior. Counseling ethics deals with a moral and ethical standard, which includes a counselor's attitude, guideline of conduct in counseling. The cases of sexual misconduct in counseling setting and also in Christian counseling setting have been reported frequently these days. A counselor's sexual misconduct breaks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s and clients. Counselors who committed sexual misconduct are mainly male. Counselors should maintain a psychological and physical safety-distance from clients. Also, counseling institutes, such as associations, academies, societies, and graduate schools, in which they issue license of counseling should provide education system and/or curriculum on Christian counseling ethics in detail. One who wants to be a Christian counselor ought to have biblical perspective on human and Christian self-identify.

Key words: counseling, counselor, counseling ethics, Christian counseling, sexual conduct